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조 금 속 조 증 열[†]

경남대학교 사회과학부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30대 - 50대의 전업주부 156명, 취업주부 144명이었다. 연구 결과, 우선,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은 긍정 및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자녀관계 만족도로 나타났고, 전업주부의 경우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성역할 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태도, 긍정적/부정적 스트레스, 전반적 결혼만족도 각각과 취업여부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경우 진보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갖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안녕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전업주부의 경우 전반적 결혼만족도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증가하였고, 취업주부의 경우 긍정적/부정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결과는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가 주부의 취업여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는 조절변인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전업 및 취업주부, 성역할태도, 결혼 만족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심리적 안녕감

* 본 논문은 경남대학교 논문게재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본 논문을 위해 중요한 제안과 지적을 해준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교신저자 : 조증열, 경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

E-mail : jrcho@kyungnam.ac.kr

가정은 모든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사회단위이며 인간이 성장, 발달해 나가는 일차적 환경인 동시에 그들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의 장이다. 이 가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주부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이거나 신체적인 문제를 갖게 되면, 가족원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부의 건강은 건전한 가정을 형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장명옥, 1985).

주부의 활동은 비교적 비구조적이고 잘 눈에 띄지 않으며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 역할에서 오는 보상을 적게 느끼며, 가사 일에 따른 끊임없는 육체적 작업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한 욕구불만과 좌절감 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주부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장명옥, 1985). 또한 주부들은 서비스직을 제외한 어떤 직업인들보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숙, 1985).

스트레스를 다루는 여러 연구들은 기혼 여성들의 정신건강상태가 미혼 남녀나 기혼 남성들에 비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고(은숙, 1992). 남성들보다 주부에서 신경증의 발병율이 높으며, 주부들의 정신적 건강수준이나 심리적인 행복도가 기혼 남성들에 비해 낮다고 볼 수 있다(권경희, 1985).

주부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변인으로 취업이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일부 연구들은 과연 취업이 주부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논의하였다(예, 김혜원, 1997). 선행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취업여부, 즉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신 주부들과 그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요인들이 주부의 취업여부와 상호작용 하여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한다(김혜원, 1997; Baruch, Biener & Barnett, 1987; Barnett, Davison & Marshall, 1991). 예를 들어, 김혜원(1997)은 취업과 전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사회구조적 변인, 주부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역할의 질, 또한 성역할태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취업주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부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 종류인 반면, 전업주부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자녀의 성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도 취업 및 전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태도를 의미하며, 전통적이고 진보적인 정도를 말한다(Pleck, 1985). 일반적으로 취업여성들은 비취업 여성들에 비해 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1997; Parry, 1987). 또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역할태도의 영향을 받았다. 취업주부들은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녔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아졌고, 전업주부들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녔을 때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아졌다(김혜원, 1997). 유사하게,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취업주부들은 진보적인 태도를 지닌 취업주부들에 비해 역할간의 갈등과 우울감, 신체적 피로 등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었다(안선영, 1987; 조자령, 1991). 이는 주부들이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에 관계없이 그들의 현재 역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성역할 태도와 일치할 때 보다 행복감과 심리적 건강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심리적 안녕감은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 혹은 인생 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Andrews & Robinson, 1991). 또한 안녕감은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행복감 또는 총체적인 감정으로 정의되며, 주관적인 측면이 강조된다(McDowell & Newell, 1990). 즉 개인의 안녕감은 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현재의 삶에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결혼 만족과 직접 관련된다. 결혼 만족이란 결혼과 관련하여 지각하는 주관적인 행·불행 상태를 의미하며(Bahr, Chappell, & Leigh, 1983), 결혼생활의 여러 영역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 즉 일종의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라고 정의한다(이정련, 1987).

결혼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학력, 생활수준, 취업유무 등을 들 수 있다. 학력이 낮은 집단보다는 높은 집단의 결혼만족도가 높고(이정련, 1987; 최규련, 1984), 가정의 생활수준은 대체로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최규련, 1984). 취업유무가 결혼만족도와 관련되었는데, 주부가 취업할 경우에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영주, 1979). 김혜선(1981)의 연구에서는 취업유무 그 자체보다는 남편의 지지여부가 이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스트레스도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에 관한 정의가 다양하지만,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 간의 특별한 관계로서 자신의 자원에 부담이 되거나 자신의 안녕감을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간의 밀접한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또한 Seyle(1976)은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스트레스요인

에 의한 유기체의 소모적인 비특이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트레스 반응은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와 같은 신체적 불균형상태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으며 긍정적 스트레스(eustress), 부정적 스트레스(distress) 모두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스트레스를 환경적 자극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일상생활에서의 생활사건 스트레스 요인을 다루고 있다(Holms & Rahe, 1967).

고은숙(1992)은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 주부들이 가정에서 불만을 느낄 경우 만족을 얻을만한 다른 역할이 없다는 것, 자신이 도구적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좌절감, 주부의 활동이 비교적 길로 드러나지 않을뿐더러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그 역할에서 오는 보상을 적게 느끼는 것, 그리고, 취업주부는 승진에서의 불평등, 가사일, 자녀 양육 문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 등이다.

특히 취업주부는 가정과 직장에서 오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고은숙(1992)에 의하면 취업 주부는 전체 스트레스 수준에선 높지 않았지만, 취업에 대한 자녀의 이해 부족, 가사부담, 양가 부모님의 취업 중단 희망 및 직장 문제 등의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했다. 또한 취업주부의 직종과 연령에 따라서도 스트레스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전문 관리직에 비해 단순 노무직, 서비스 직 등의 하위직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20대 취업 주부에 비해 연령이 높은 취업 주부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현균과 원호택(1995)도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 받는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다른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전업주부는 배우자와의 다툼 혹은 화해 등 가족과 관련된 스트

레스가 많았고, 취업주부에서는 개인적 일의 성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많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성역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들은 성역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한다. 둘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역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셋째,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역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의 하위요인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지를 회귀분석으로 통해 알아본다. 넷째, 주부들의 취업여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성역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가 조절 변인(moderator)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장희숙, 1994 참조).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의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지역에 살고 있는 30세에서 59세사이의 주부 300명이었다. 이 중에서 전업주부는 156명, 취업주부는 144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혼만족도 척도에 배우자관계, 자녀관계를 알아보는 문항이 있으므로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주부들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2000년도 2월 - 3월에 조사되었다.

취업주부는 직업의 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단지 생계의 해결 수단만으로 취업한 가능성을 최소한 배제하기 위하여 고졸 학력 이상의 주부로서 안정적인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교사, 공무원, 간호사, 보험설계사, 자영업,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고¹⁾, 전업주부는 고졸 학력 이상의 가정주부로서 결혼을 한 후,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가정생활만 하고 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 도구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Campbell, Converse, 및 Rodgers (1976, 한정원, 1997 재인용)의 "주관적 안녕 지표"를 한정원(1997)이 번역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개인의 보편적 안녕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9문항과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1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편적 안녕감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들(9 문항)은 일상생활에서 각자가 느끼는 보편적인 정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형용사 쌍들(예 행복함 - 불행함)중 한 형용사는 1점, 상대되는 형용사는 7점에 배치한 후, 1점부터 7점까지 평소 자신의 생활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점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의 점수를 모두 합한 것이 개인의 안녕감 점

1) 조사 대상자 중 취업주부의 직업 종류는 전문 관리직이 56%로 취업주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들은 교사, 유치원 교사, 전문 상담가, 치위생사 등이었다. 본 연구의 취업주부 중에서 전문 관리직의 해당비율(56%)은 우리나라 평균인 9.9%(한국 여성 개발원, 199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이 크다고 해석된다. 한정원(1997)이 보고한 심리적 안녕감의 신뢰도 계수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으로 나타났다.

결혼 만족도

전반적 결혼만족도. 결혼 및 배우자에 대한 전반적 만족을 묻는 척도로, Bahr와 동료들(1983)과 Snyder(1979)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이정련(1987)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매우 불만족(1점)에서 매우 만족(5점)에 이르는 5단계 Likert형 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정련(1987)이 보고한 전반적 결혼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5로 나타났다.

영역별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김명자(1977), 유영주(1979), Snyder(1979)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한국 상황에 적절하게 제작한 이정련(1987)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으로는 자녀 관계, 성생활, 정의적(情意的)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댁 관계, 경제 문제, 동료감인데, 각 하위 영역마다 3문항~7문항정도로 되어 있다. 진술된 각 문항의 내용은 매우 만족(5점)에서 매우 불만족(1점)으로 응답하는 5단계 Likert형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영역별 결혼만족도의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자녀관계: .79; 성생활: .84; 정의적 의사소통: .79; 문제해결 의사소통: .74; 시댁 관계: .24; 경제 문제: .61; 동료감: .85. 시댁관계는 신뢰도 계수가 낮으므로 결과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생활사건 스트레스

Sarason, Johnson, 및 Siegel(1978)이 제작한 생

활 경험 조사 질문지를 이영호(1993)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부분은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들이 흔히 경험하는 생활 변화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학생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10문항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47문항 중에서 주부에 해당하지 않는 문항 11개를 제외한 36문항을 사용하였다.

생활경험 조사 질문지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의 영향과 바람직성을 각 문항별로 개별적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즉 지난 1년 동안 경험한 사건에 대해 (1)그 사건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2)그 당시에 그 사건의 지각된 영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3에서 +3까지). 긍정적 생활사건 변화 점수는 1점에서 3점까지 평정된 모든 문항에 대해 평정치를 더함으로써 계산되고, 부정적 변화 점수는 -3점에서 -1점까지 평정된 모든 문항에 대해 평정치의 절대값을 더함으로써 계산되었다.

성역할 태도

본 연구에서는 정중희(1983)가 Sex-Role Orientation Scale(Osmond & Martin, 1975, 정중희, 1983 재인용)과 Sex-Role Ideology Scale(Mason & Bumpass, 정중희, 1983 재인용)을 표준화한 성역할 척도를 기초로 하여, 김혜원(1997)이 수정보완한 성역할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가정역할, 직업역할, 성격 및 행동에 관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전통적인지, 진보적인지를 측정하였다.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들은 5점 척도(1: 전통적 성역할태도; 5: 진보적 성역할 태도)이며, 높은 점수를 받을수

록 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낮은 점수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김혜원(1997)이 보고한 성역할태도 검사의 신뢰도 계수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결 과

각 변인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평균점수 비교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가 평정한 각 변인별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었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들의 평균점수가 다른지의 여부를 *F*검증으로 비교하여보았고,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을 보면,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연령이 더 많았고($F(1,298)=14.45, p<.001$), 성역할태도가 더 진보적이었고($F(1,298)=25.29, p<.001$), 자녀관계 결혼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었고($F(1,298)=3.54, p=.061$),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더 큰 경향이 있었다($F(1,298)=3.15, p=.077$).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과 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과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를 보면,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연령($r=-.20, p<.05$)과 부정적 스트레스($r=-.37, p<$

표 1. 각 변인별 주부와 취업주부의 평균점수의 비교(표준편차)

	전업주부	취업주부	<i>F</i> (1,298)
연령	44.50(7.94)	41.13(7.40)	14.45***
성역할태도	3.24(.70)	3.65(.72)	25.29***
결혼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3.45(.71)	3.31(.78)	2.61
자녀관계	3.61(.64)	3.75(.65)	3.54+
성생활	3.29(.71)	3.38(.62)	1.25
정의적 의사소통	3.43(.67)	3.40(.81)	.18
문제해결 의사소통	3.57(.59)	3.61(.63)	.55
경제문제	3.51(.64)	3.50(.64)	.85
동료감	3.68(.70)	3.72(.77)	.70
생활사건스트레스			
긍정	4.44(4.67)	4.78(4.59)	.43
부정	6.38(7.00)	7.99(8.73)	3.15+
심리적 안녕감	4.91(1.05)	4.90(1.08)	.96

*** $p<.001$, + $p<.10$

표 2.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안녕감과 각 변인들과 상관관계

	안녕감	
	전업주부	취업주부
연령	-.20*	-.12
성역할태도	-.10	.19*
결혼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55***	.38***
자녀관계	.23**	.35***
성생활	.42***	.27***
정의적 의사소통	.37***	.31***
문제해결 의사소통	.36***	.45***
경제문제	.23**	.29***
동료감	.37***	.32***
생활사건스트레스		
긍정	.09	.31***
부정	-.37***	-.22**

*** $p < .001$, ** $p < .01$, * $p < .05$

.001)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결혼만족도의 모든 하위 변인들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23 < r < .55$, $.01 < p < .001$).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부정적 스트레스($r = -.22$, $p < .01$)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고, 성역할태도($r = .19$, $p < .05$), 긍정적 스트레스($r = .31$, $p < .001$), 결혼만족도의 모든 하위 변인들과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27 < r < .45$, $p < .001$).

전업과 취업주부 모두에서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졌다. 반면, 연령 및 성역할태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의 상관관계는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전업주부의 경우 연령의 증가가 심리적 안녕감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없었다. 반면에, 취업주부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없었다. 또한 취업주부의 경우 긍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하였지만,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변인들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결혼만족도의 하위변인들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정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결혼만족도 하위영역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전업주부: $.19 < r < .63$, $.05 < p < .001$; 취업주부: $.23 < r < .64$, $.01 < p < .001$),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 가정을 위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전반적 결혼만족도는 제외하고 하위영역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전반적 결혼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예언 변인들이 회귀방정식에 입력되었다.

회귀 분석의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성역할태도($\beta = -.16$, $p < .05$), 부정적 스트레스($\beta = -.30$,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연령($\beta = -.13$, $p < .10$), 자녀관계 만족도($\beta = .14$, $p < .07$)와 성생활 만족도($\beta = .17$, $p < .06$)는 경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해주었다. 취업주부의 경우, 긍정적 스트레스($\beta = .32$, $p < .001$), 부정적 스트레스($\beta = -.23$, $p < .01$), 자녀관계 만족도($\beta = .20$, $p < .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문제해결의사소통 만족도($\beta = .23$, $p < .06$)는 경계적

표 3. 각 변인들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한 회귀분석의 결과

	안녕감			
	전업주부		취업주부	
	β	t	β	t
연령	-.13	-1.69+	.10	1.18
성역할태도	-.16	-2.15*	.06	.76
결혼 만족도				
자녀관계	.14	1.85+	.20	2.48*
성생활	.17	1.94+	.00	.00
정의적 의사소통	.12	1.21	.02	.18
문제해결의사소통	.01	.09	.23	1.97+
경제문제	.02	.21	.08	.94
동료감	.09	1.02	.06	.62
생활사건스트레스				
긍정	.08	1.05	.32	4.37**
부정	-.30	-3.72**	-.23	-2.76**

** $p < .01$, * $p < .05$, + $p < .10$

전업주부: $R^2 = .34$; 취업주부: $R^2 = .37$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잘 예측해주고 있었다. 즉 부정적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조절변인으로서의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

주부의 취업유무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성역할태도, 스트레스, 결혼만족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즉 성역할태도,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하위 변인들이 취업유무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서 조절변인

(moderator)으로 작용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취업유무와 각 변인과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을 한 결과, 성역할태도, 긍정적 스트레스, 부정적 스트레스 및 전반적인 결혼만족도가 취업유무와 유의한 상호작용을 보였다.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

취업유무, 성역할태도 및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를 보면,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었

표 4.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B	표준오차	β	t
상수	6.92	.92		7.50
취업유무	-1.54	.61	-.72	-2.53*
성역할태도	-.58	.27	-.41	-2.15*
상호작용	.44	.17	.95	2.53*

$R^2=.023$; $p<.05$

표 5. 취업유무와 긍정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b	표준오차	β	t
상수	5.07	.26		19.28***
취업유무	-.26	.17	-.12	-1.54
스트레스	-.03	.04	-.13	-.75
상호작용	.05	.03	.37	1.99*

$R^2=.052$; *** $p<.001$; * $p<.05$

다($\beta=.95$, $p<.05$).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에서의 상호작용효과는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으로 그려졌다. 즉 취업유무, 성역할태도, 및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기 위하여 비표준화 회귀계수로 회귀식을 구하고, 예언변수인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회귀식에 대입하여 심리적 안녕감의 예언값을 구하였다.

그림 1을 보면, 취업주부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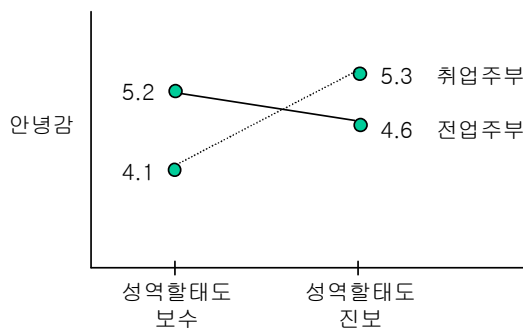


그림 1.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와의 상호작용 분석도

취업유무와 긍정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취업유무, 긍정적 스트레스 및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5에서 보면, 취업유무와 긍정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37$, $p<.05$). 취업유무와 긍정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 효과가 그림 2에 제시되었다. 그림 2를 보면,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경우 긍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긍정적 스트레스는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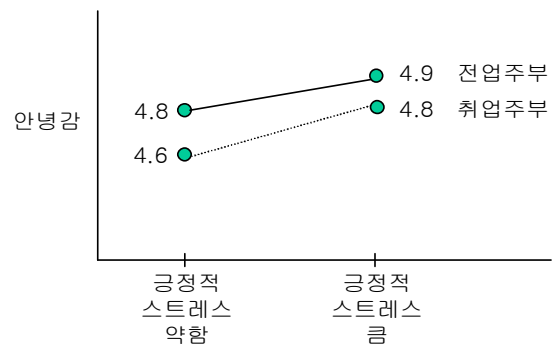


그림 2. 취업유무와 긍정적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 분석도

취업유무와 부정적 스트레스와의 상호작용

취업유무, 부정적 스트레스 및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다. 표 6에서 보면, 취업유무와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은 심리적 안녕감을 경계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37, p = .066$). 이 상호작용은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경우 부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더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부정적 스트레스는 전업주부보다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시사해준다.

취업유무와 전반적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

취업유무, 전반적인 결혼만족도 및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회귀

표 6. 취업유무와 부정적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B	표준오차	β	t
상수	5.40	.25		21.57***
취업유무	-.14	.16	-.07	-.89
스트레스	-.08	.03	-.62	-3.27***
상호작용	.03	.02	.37	1.85+

$R^2 = .09$; *** $p < .001$; + $p = .066$

표 7. 취업유무와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B	표준오차	β	t
상수	.99	.82		1.20
취업유무	1.10	.51	.52	2.16*
결혼만족도	1.12	.24	.79	4.74***
상호작용	-.30	.15	-.56	-2.0*

$R^2 = .224$; *** $p < .001$; * $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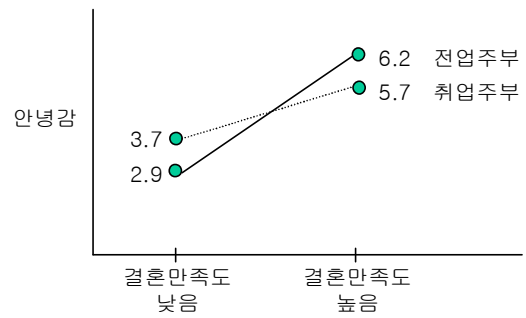


그림 3. 취업유무와 전반적 결혼만족도와의 상호작용 분석도

분석을 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다. 표 7에서 보면, 취업유무와 전반적인 결혼만족도의 상호작용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beta = -.56, p < .05$).

취업유무와 결혼만족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림 3에 제시되었다. 그림 3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취업주부의 안녕감은 결혼만족도에 적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취업주부보다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결혼만족도의 영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성역할태도, 긍정적/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 및 결혼 만족도가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성역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결혼만족도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는 심리적

안녕감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취업여부가 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연구(Baruch, et al., 1987; Barnett, et al., 1991)와 일치한다.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는 결혼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자녀관계 만족도는 취업주부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결과는 주부가 취업할 경우에 결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유영주(1979)의 연구 결과와는 비교적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태도, 생활사건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들로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자녀관계 만족도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자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고 예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는 부정적 생활사건으로 인한 주부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녀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한 방안임을 시사한다.

일부의 변인들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역할태도, 연령, 성생활 만족도는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고, 긍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도는 취업주부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었다. 우선, 연령의 증가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었지만,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결과는 전업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은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취업주부의 안녕감은 연령과 관련되지 않

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든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연령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다(권경희, 1985; 전세경, 1988).

본 연구에서 취업주부가 전업주부보다 더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는 여성의 가치를 남성에게 비해 낮게 평가하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달리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예, 김혜원, 1997). 회귀분석의 결과는 전업주부의 경우 진보적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낮아졌지만 취업주부에서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취업유무와 성역할태도에 따라 주부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취업주부의 경우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일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아지는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성역할태도가 전통적일수록 안녕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성역할태도가 취업유무와 심리적 안녕감의 사이에서 조절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김혜원, 1997; 조자령, 1991; Parry, 1989; Marshall & Barnett, 1993)의 결과와 일치하며, 진보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취업주부들이 역할 간 갈등, 우울감, 신체적 피로 등을 더 적게 경험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안선영, 1987; 조자령, 1991). 최근 들어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들의 사회적 성취와 자아실현이 강조되지만, 모든 기혼 여성에게 사회적 성취가 안녕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주부들의 심리적 건강은 취업여부와 관련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역할이 자신의 성역할 태도와 일치할 때 더 행복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것을 보여준다.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들 중에서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도가 취업주부의 안녕감에 영향을 주고, 반면에 전업주부의 안녕감에는 성생활 만족도가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취업주부의 안녕감이 의사소통 만족도의 영향을 받은 본 연구의 결과는 이정련(1987)의 연구에서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도가 자아실현성과 관련이 되었다는 결과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취업주부에서는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과 문제해결 의사소통이 중요하게 간주되고, 이것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 결혼만족도의 어떤 하위 영역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이 결혼만족도, 스트레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긍정적,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는 주부들의 취업유무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에 비해서 취업주부의 경우 긍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의 증가가 더 커지고, 부정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스트레스에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취업주부는 전업주부보다 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었다. 취업주부는 가정뿐 아니라 직장도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예, 신현균과 원호택, 1995).

또한 취업유무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에 전반적인 결혼만족도가 조절변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전업주부의 경우 전반적 결혼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취업주부의 안녕감은 결혼만족도에 비교적 적게 영향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은 성역할태도, 긍정적/부정적 생활사건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질수록, 전업주부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심리적 안녕감은 높아졌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모두에서 심리적 안녕감은 부정적 및 긍정적 스트레스,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취업주부는 긍정적 및 부정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전업주부는 전반적 결혼만족도의 영향을 비교적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들의 스트레스,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안녕감 사이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Lazarus(1966)는 스트레스가 생활사건에 대한 개인의 지각, 대처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고, Rotter(1966)는 부정적 변화와 우울증과 불안간의 관계가 생활사건에 대한 지각된 통제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면, 연구의 대상자들이 고학력자와 교사와 같은 전문직에 편중되어 있어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하여 주부들을 더 잘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미흡하나마 주부들의 취업여부와 심리적 안녕감 사이의 조절변인을 밝혀본 연구로써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고은숙 (1992).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내외통제성 및 관련 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경희 (1985). 한국도시주부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 (1977). 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 (1981). 결혼만족도에 관한 문헌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1997). 취업주부와 전업주부의 심리적 안녕감; 사회구조적 변인, 성역할태도, 역할의 질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2), 111-127.
- 신현균, 원호택 (1995). 취업여부 및 연령에 따른 주부들의 스트레스: 생활사건경험을 중심으로. 심리과학, 4, 1-15
- 안선영 (1987). 취업주부의 가정 내 역할갈등과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영주 (1979). 한국 도시 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 집, 4, 1-13.
- 이영호 (1993). 귀인양식, 생활사건, 사건 귀인 및 무망감과 우울의 관계: 공변량 구조 모형을 통한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련 (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105-115.
- 이평숙 (1985). 생활사건과 관련된 스트레스량 측정에 관한 방법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명옥 (1985). 가정관리학. 교문사.
- 장병옥 (1985).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 수준 및 적응 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 (1994). 발달심리학 연구에서의 중재와 조절: 자기효율성의 중재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7(1), 210-219.
- 전세경 (1988). 가족스트레스와 가족 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종희 (1983). 어머니의 성역할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자령 (1991). 취업주부의 역할관리 전략과 역할갈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 (1984). 부부의 성 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22(2), 91-101.
- 한정원 (1997). 자기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ndrews, F. M., & Robinson, J. P. (1991).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In J. P. Robinson, P. R. Shaver, & L. S. Wrightsman (Eds.), *Measures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Vol. 1* in Measures of Social Psychological Attitudes Series. San Diego: Academic Press.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CA: Sage.
- Bahr, S. J., Chappell, C. B., & Leigh, G. K. (1983). Age at marriage, role enactment, role consensu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795-803.
- Barnett, R. C., Davison, H., & Marshall, N. L. (1991). Physical symptoms and the interplay of work and family roles. *Health Psychology*,

- 10(2), 94-101.
- Baruch, G. K., Biener, L., & Barnett, R. C. (1987). Women and gender in research work and family stress. *American Psychologists*, 42(2), 130-136.
- Holmes, T. H., & Rahe, R. H. (1967).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11, 213-218.
- Lazarus, R. S. (1966). *Psychological stress and the coping process*. New York: McGraw-Hill.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Marshall, N. L. & Barnett, R. C. (1993). Work-family strains and gains among two-earner couple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1, 64-78.
- McDowell, I. & Newell, C. (1990). *Measuring health: A Guide to Rating Scales and Questionnaires*. Oxford.
- Parry, G. (1987). Sex-role beliefs, work attitudes and mental health in employed and non-employed mother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 47-58.
- Pleck, J. H. (1985). *Working wives /working husbands*. Beveroy Hills: Sage.
- Rotter, J. B. (1966).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 General and Applied*, 80, 609-618.
- Sarason, I. G., Johnson, J. H., & Siegel, J. M. (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5), 932-946.
- Selye, H. (1974). *Stress without distress*. Philadelphia: Lippincott.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and Nonemployed Married Women: Gender-Role Attitude, Life Event Stress, and Marital Satisfaction as a Moderator

Gum-Suk Jo

Jeung-Ryeul Cho

Kyungnam University, Division of Social Science

This study explored the extent to which gender-role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life event stress is related to psychological well-being of employed and nonemployed Korean married women. Participants were 156 nonemployed and 144 employed women aged between 30 and 59. As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well-being of employed women was independently predicted by negative and positive life event stresses as well as relationship with children, whereas that of nonemployed women was affected by negative life event stress and gender-role attitude. In addition, the effects of gender-role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and life event stress on the well-being of wives were foun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employment. For example, liberal gender-role attitude had positive effects on the well-being of employed women, whereas traditional gender-role attitude was positively related to that of nonemployed women. In addition, marital satisfaction in general gave more effects on the well-being of nonemployed women than that of employed women. On the other hand, employed women were affected by positive and negative life event stresses more than nonemployed women.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gender-role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life event stresses operate as a moderator in the relation of employment and the well-being of Korean married women.

key words : employment of married women, gender-role attitude, marital satisfaction, life event stress, psychological well-being